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예·디자인학 석사학위논문

장신구 잠금장치를 조형요소로 활용한 작품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김 우 정

장신구 잠금장치를 조형요소로 활용한 작품연구

지도교수 서 도 식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김 우 정

김 우 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백 경 찬 (인)
부 위 원 장 민 복 기 (인)
위 원 서 도 식 (인)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장신구의 잠금장치를 조형요소로 활용한 작품연구이다. 장신구의 잠금장치는 개폐의 기능으로 장신구를 인체에 탈착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또한 잠금장치는 제작 기법과 종류, 형태에 따라 장신구에 독특한 심미성을 부여함으로써 장신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잠금장치는 뒤쪽에 감추어지거나 내부에 숨겨지는, 장신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여겨진다. 잠금장치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에 물음을 던지고, 잠금장치 자체를 장신구의 핵심적인 조형 요소로 활용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잠금장치란 무엇이며, 어떠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리고 현대 장신구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잠금장치를 구조적 특성별로 분류하여 기능과 작동원리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잠금장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장신구의 잠금장치를 핵심적인 조형요소로 활용한 연구작품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작품은 잠금장치 작동원리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실험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잠금장치의 기능과 착용자의 탈착행위, 그리고 장신구와 신체의 상관관계 등에 주목한 연구작품들은 잠금장치 고유의 제작기법과 작동방식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잠금장치에 대한 연구는 이후 다른 공예 작업에도 지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장신구가 단순히 몸을 치장하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착용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 새롭게 주목하는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잠금장치, 장신구, 조형요소

학번: 2010-21291

목 차

국문초록 ····· i
작품목록 ····· iv
도판목록 ····· v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Ⅱ. 장신구의 잠금장치 ····· 3
1. 장신구 잠금장치란? ····· 3
2. 장신구 잠금장치의 변천 ····· 4
3. 현대 장신구와 잠금장치 ····· 9
4. 장신구 잠금장치의 종류와 특징 ····· 15

Ⅲ. 연구작품 설명 ····· 25
1. 레디메이드ready-made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 26
2. 구형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 36
3. 혀장식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 44
4. 나사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 51
5. 핀치 클래스프pinch clasp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 55

Ⅳ.결론 ····· 61

참고문헌 ····· 63
Abstract ····· 66

작 품 목 록

[작품 1] ready-made clasp series Ⅰ necklace 1 ····· 28
[작품 2] ready-made clasp series Ⅰ necklace 2 ····· 28
[작품 3] ready-made clasp series Ⅰ necklace 3 ····· 28
[작품 4] ready-made clasp series Ⅰ necklace 4 ····· 29
[작품 5] ready-made clasp series Ⅰ necklace 5 ····· 29
[작품 6] ready-made clasp series Ⅱ chain mail necklace 1 ····· 32
[작품 6] 의 세부사진 ····· 33
[작품 7] ready-made clasp series Ⅱ chain mail necklace 2 ····· 34
[작품 8] ready-made clasp series Ⅱ chain mail bracelet 1 ····· 35
[작품 9] ready-made clasp series Ⅱ chain mail bracelet 2 ····· 35
[작품 10] ready-made clasp series Ⅱ chain mail bracelet 3 ····· 35
[작품 11] 구형 잠금장치 목걸이 Ⅰ ····· 40
[작품 12] 구형 잠금장치 목걸이 Ⅱ ····· 41
[작품 12] 의 다양한 연결방법 ····· 42
[작품 12] 의 유닛 ····· 43
[작품 13] 혀장식 목걸이 Ⅰ ····· 49
[작품 14] 혀장식 목걸이 Ⅱ ····· 50
[작품 15] 나사 잠금장치 목걸이 Ⅰ ····· 53
[작품 16] 나사 잠금장치 목걸이 Ⅱ ····· 53
[작품 17] 나사 잠금장치 팔찌 ····· 54
[작품 18] 핀치 클래스프 목걸이 Ⅰ ····· 57
[작품 19] 핀치 클래스프 목걸이 Ⅱ ····· 58
[작품 19] 의 다양한 연결방법 ····· 59
[작품 19] 의 유닛 ····· 60

도 판 목 록

[도판 1] 신석기 시대 발찌, 동물 이빨, B.C. 4000, 경남 통영 연대도 패총에서 발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도판 2] Funerary broad-collar of Wah, Faience, linen thread, B.C. 1981 - 1975(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5
[도판 3] Clasp from the tomb of Senebtisi, Gold, B.C. 1850 - 1775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5
[도판 4] Scarab bracelet, gold open work encrusted with lapis lazuli, B.C.1325, from Valley of the Kings, Egypt (Egyptian Museum소장) 6
[도판 5] Necklace, gold, garnet, B.C. 200-100, Greece(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 6
[도판 6] Necklace, emeralds and diamonds set in gold and silver, ca. 1806, France(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 7
[도판 7] 진주목걸이의 잠금장치 8
[도판 8] Michael Becker, ketten, 18k gold 9
[도판 9] Luna Seo, <92.5 Necklace>, sterling silver, 2011 10
[도판 10] Arthur Hash, <Enlarged Clasp Series Necklace>, ABS plastic, 2011 11
[도판 11] Maison Martin Margiela, <Cylindrical Bracelet>, gold plated brass 11
[도판 12] Roger Rimel, <Disc Neckpiece with Lapis>, sterling silver, 14k gold fused on sterling, yellow sapphire 12
[도판 13] Joan Ann Parcher, <Polygon Necklace>,23k gold, sterling silver, oxidized sterling, stainless steel, 1994 12
[도판 14] Jens Clausen, <Close>, sterling silver, wool, stainless steel wire, bronze, 2012 12

[도판 15] Heather Rathbun, <Adjustable Necklace with Puzzle Clasp>, sterling silver, roller chain, 2011 ····· 13
[도판 16] Yevgeniya Kaganovich, <Pearl Clasp Necklace I>, sterling silver, 2008 ····· 14
[도판 17] Kim Buck, <String of Pearls with Gold Clasp >, silver and 18k gold, 2003 ····· 14
[도판 18] 다양한 후크hook 잠금장치 ····· 17
[도판 19] 토클toggle 잠금장치 ····· 17
[도판 20] 키홀keyhole 잠금장치 ····· 18
[도판 21] 시스터 후크sister hook ····· 18
[도판 22] 렌틸 클래스프lentil clasp(출처: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 18
[도판 23] 구형 잠금장치 ····· 19
[도판 24] 구형 잠금장치의 결합 구조 ····· 19
[도판 25] 바이오넷bayonet(출처: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 19
[도판 26] 스프링 링spring ring(출처: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 20
[도판 27] 랍스터 캐치lobster catch ····· 20
[도판 28] 피시 후크fish hook(출처: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 20
[도판 29] 핀치 클래스프pinch clasp(출처: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 20
[도판 30] 다양한 혀장식 혀의 구조 ····· 21
[도판 31] 혀장식 박스 기본 구조 ····· 21
[도판 32] 혀장식 박스 응용형 ····· 21
[도판 33] 혀장식 버튼 ····· 22
[도판 34] 다양한 종류의 안전장치 ····· 22
[도판 35] 경첩 잠금장치 ····· 23

[도판 36] 다양한 경첩 핀 고정방법 ····· 24
[도판 37] Cat Chow, <Bonded>, single zipper, 2000 ····· 27
[도판 38] Jerry Bleem, <Monument (after Barlach)>, found corrugated plastic, staples, 2001 ····· 27
[도판 39] 체인 메일chain mail ····· 30
[도판 40] 체인메일-inverted round 기법 ····· 31
[도판 41] 체인메일-captive inverted round 기법 ····· 31
[도판 42] 구형 잠금장치 기본구조 ····· 37
[도판 43] 작품 디자인 과정(Adobe Illustrator 사용) ····· 39
[도판 44] 작품 내부의 부식표현 ····· 39
[도판 45] 혀장식 기본박스 ····· 45
[도판 46] 혀장식 박스도면 ····· 45
[도판 47] 혀장식의 혀 ····· 46
[도판 48] 혀장식 버튼 입구 ····· 46
[도판 49] 혀장식 시리즈의 잠금장치 기본구조 ····· 47
[도판 50] [작품 15]의 연결구조 ····· 51
[도판 51] [작품 16]의 연결구조 ····· 51
[도판 52] [작품 17]의 연결구조 ····· 52
[도판 53] 핀치 클래스프 시리즈의 기본 연결구조 ····· 56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장신구의 잠금장치를 조형요소로 활용한 작품 연구이다. 장신구의 잠금장치는 장신구를 인체에 탈착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그러나 장신구에서 잠금장치는 단순히 개폐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 심미성을 보여주고 또 독특한 제작방법과 기능에 의해 장신구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잠금장치는 눈에 띄지 않게 뒤쪽에 감추어지거나 내부에 숨겨지는 등,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장치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잠금장치에 대한 그와 같은 인식에 의문을 품고 잠금장치 자체를 장신구의 핵심적인 조형 요소로 활용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장신구만의 특징적인 요소를 주목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장신구의 잠금장치는 간과하기 쉬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제작과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구조의 응용력과 숙련된 기술을 한눈에 보여주며, 또한 전체적 디자인의 완성도를 압축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연구자는 장신구의 잠금장치를 장신구 제작의 주도적인 조형요소로 활용하여 현대 장신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잠금장치를 핵심적인 조형요소로 활용한 장신구 작품제작을 위해, 먼저 장신구 잠금장치란 무엇이며,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현대 장신구에서 잠금장치가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잠금장치의 구조적 기능을 파악하기위해 종류별 특징을 세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잠금장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잠금장치를 장신구의 핵심적인 조형요소로 활용한 연구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작품은 제작방법의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작동원리와 제작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잠금장치 고유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형태, 재료, 작동방식 등을 변형했다.

이번 연구는 장신구의 여러 종류 중 길이가 길어 잠금장치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 목걸이와 팔찌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왜냐하면 목걸이와 팔찌의 경우, 브로치처럼 착용자의 옷을 뚫고 지나가거나 귀걸이처럼 신체 피어싱 등의 추가적이고 보조적인 조작이 필요 없이, 개폐의 기능을 가진 잠금장치만으로 장신구의 여러 요소와 착용자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성이 본 연구의 주제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장신구의 잠금장치

1. 장신구 잠금장치란?

잠금장식, 물림장치, 뒷장식 등으로도 불리는 장신구 잠금장치는 개폐의 기능으로 장신구를 인체에 탈착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특히 잠금장치가 없다면 착용 불가능한 장신구를 인체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연결 기능뿐만 아니라 제작 기법과 종류, 형태에 따라 장신구에 독특한 심미성을 부여함으로써 장신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하지만 모든 잠금장치는 착용자에게서 장신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팀 맥크라이트Tim McCreight는 성공적인 잠금장치의 필수요소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성공적인 잠금장치란;

① 안전해야 한다.

② 정확한 기능을 구현해야한다.

③ 착용자가 쉽게 이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각적 개념적으로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조정과 수리가 쉬워야 한다.[2)]

---

1) 김경아, 이정임, 『공예가를 위한 귀금속 공예기법』, 쥬얼테크, 2005, p.121.
2) Tim McCreight, 『Complete Metalsmith』, Davis, 2005, p.242

2. 장신구 잠금장치의 변천

장신구를 인체에 착용하는 방법의 시초는 '묶기' 이다. 약 4만 년 전 석기시대의 장신구는 조개껍질, 뼈, 이빨, 나무, 돌 등의 자연 재료들을 덩굴이나 동물의 힘줄을 끈으로 엮어 만들었는데,[3] 이를 인체에 연결하는 방법은 그 끈을 연장시켜 묶는 방법이었다. 소재를 연결한 끈은 대부분 유기질이었기 때문에 썩어 버렸지만 [도판 1]의 뼈 조각에 인위적으로 뚫은 구멍에서 묶기 방식으로 연결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도판 1] 신석기 시대 발찌, 동물 이빨, B.C. 4000,
경남 통영 연대도 패총에서 발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돌을 깎는 기술이 발달함과 더불어 장신구의 다양성도 증가했다.[4] 인류 초기 거주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멍이 뚫린 작은 돌 구슬로 만든 비드beads 장신구를 통해서도 묶기 방식으로 장신구를 인체에 연결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2]는 이집트 와Wah의 무덤에서 발견된 목걸이로 노끈에 구슬들이 끼워져 그가 생전에 한 것으로 추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라의 목에 묶여 있었다. 끈에 구슬을 끼워 매듭을 묶는 방법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에서 'necklace' 검색 참조.
4)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김숙 역, 시공아트, 1999, p.7.

(좌)[도판 2] Funerary broad-collar of Wah, Faience, Linen thread, B.C. 1981-1975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우)[도판 3] Clasp from the tomb of Senebtisi, Gold, B.C. 1850-1775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이후 금속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신구 역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장신구는 장식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섬세한 표현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도판 3]의 경우 구슬 목걸이의 금장식이 매듭연결방법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장신구 잠금장치 역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집트 '왕의 계곡Valley of the King'의 투탕카멘 묘에서 발견된 [도판 4]의 팔찌에서 관찰해보자. 이 팔찌는 단순히 인체에 묶이는 것이 아닌 팔목에 딱 맞는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의 개폐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팔찌의 잠금장치는 금속 파이프를 통과하는 핀의 탈착으로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잠금장치의 제작 기술이 크게 발전했음을 잘 보여준다.

(좌)[도판 4] Scarab bracelet, gold open work encrusted with lapis lazuli, B.C. 1325, from Valley of the Kings, Egypt (Egyptian Museum 소장)
(우)[도판 5] Necklace, Gold, Garnet, B.C. 200-100, Greece(Victoria and Albert Museum소장)

[도판 5]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의 금과 가넷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이다. 당시는 길이가 짧은 목걸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5] 잠금장치의 기능성이 더욱 중요했다. 이 목걸이는 목걸이 자체의 무게감으로 인해 후크가 열리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잠금장치를 염소모양으로 제작하여 그 자체를 상징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잠금장치의 형태를 통해 그리스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도 엿볼 수 있다.

5) http://collections.vam.ac.uk/item/O111386/necklace-unknown 참조.

[도판 6] Necklace, Emeralds and diamonds set in gold and silver, ca. 1806(made), France(Victoria and albert museum소장)

[도판 6]과 같이, 이후 잠금장치의 형태와 기능성은 더욱 섬세하게 발전하여 금속의 탄성을 이용한 혀 장식에 이른다. 혀 장식은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이전의 어떠한 잠금장치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했다. 또한 [도판 6] 목걸이의 잠금장치는 몸체와 크게 구별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 목걸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잠금장치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잠금장치의 장식적인 특징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판 7]의 진주 목걸이를 들 수 있는데, 이에 사용된 혀장식은 접속부분이 잠금장치 외형 속에 감추어져 외부에 장식적인 요소를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잠금장치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안정성으로 인해 고가의 장신구의 잠금장치로 적합하였다.

[도판 7] 진주목걸이의 잠금장치

이후 산업화에 따라 잠금장치의 생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중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장신구와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공예적 장신구에서 대비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기계화를 수반한 근대 산업기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사물 제작과정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필요치 않았을지 모르지만[6], 대량생산 체제로 인해 장신구의 판도 역시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잠금장치의 경우, 이전에는 재료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 부분이었지만, 기계의 도입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손기술은 제거되고 점차 대량생산화하여 모든 장신구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일반형으로 대체 제작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잠금장치는 점차 장신구 몸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다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공예가가 만든 잠금장치는 개폐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속품이 아닌, 제작자의 기량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장신구 자체의 통합적 디자인의 일부로써, 착용자와 장신구를 이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6) 하워드 리사티, 『공예란 무엇인가』, 허보윤 역, 미진사, 2011, p.234.

3. 현대 장신구와 잠금장치

[도판 8] Michael Becker, <Ketten>, 18k gold

마이클 베커Michael Becker의 목걸이는 모두 사각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유닛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도판 8]. 하지만 그는 똑같은 구조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몸체 유닛의 디자인과 연결방법에 어울리는 키홀, 혀장식 등의 각기 다른 제작기법을 응용하여 목걸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긴밀히 어울리는 잠금장치를 만들었다.

위와 같이 성공적인 잠금장치는, 장신구의 성격과 따로 분리되어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품이 아닌, 장신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작품에 심미적인 기능을 부여함은 물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잠금장치는 뒤쪽에 감춰져 있거나 내부에 숨겨져 그 중요성은 눈에 띄지 않았다. 잠금장치가 없다면 장신구를 신체에 부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맥락에서 장신구 잠금장치를 새로운 조형요소로서 주목한 현대 장신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판 9] Luna Seo, <92.5 Necklace>, sterling silver, 2011

[도판 9] 루나 서Luna Seo의 <92.5 Necklace>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금장치가 왜 항상 뒤에 숨겨져 있으며, 사람들은 왜 잠금장치를 숨기려고 노력할까를 묻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는 잠금장치를 일반적으로 팬던트가 있어야 할 곳에 놓아 그 기능적 역할을 전치시킨다.

[도판 10] Arthur Hash, <Enlarged Clasp Series Necklace>, ABS plastic, 2011

루나 서가 모두에게 익숙한 기성품 잠금장치를 그대로 이용했다면 아서 해쉬Arthur Hash는 그 잠금장치와 체인을 3차원 프린팅3D printing 기법으로 제작하였다[도판 10]. 작품 제목처럼 그는 본래 잠금장치의 일상적 크기를 초현실적으로 확대시켜 강조하였다.

[도판 11] Maison Martin Margiela, <Cylindrical Bracelet>, gold plated brass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 사 또한 기존의 잠금장치의 형태를 확대하여 장신구로 제작했다[도판 11]. 확대된 잠금장치는 목걸이나 팔찌의 부속품이 아닌 팔찌 자체로서 이동, 변환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좌)[도판 12] Roger Rimel, <Disc Neckpiece with Lapis>, sterling silver, 14k gold fused on sterling, yellow sapphire

(우)[도판 13] Joan Ann Parcher, <Polygon Necklace>, 23k gold, sterling silver, oxidized sterling, stainless steel, 1994

(아래)[도판 14] Jens Clausen, <close>, sterling silver, wool, stainless steel wire, bronze, 2012

[도판 9, 10, 11]의 장신구가 기존의 잠금장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경우라면, [도판 12, 13, 14]의 장신구는 잠금장치의 제작원리들을 새롭게 응용하였다. 세 작품 모두 같은 구조의 잠금장치로 토글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링과 바형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각기 다른 식으로 응용, 제작하였다. 로져 림멜Roger Rimel은 링과 바의 질감과 부피를 대비시켜 잠금장치에 새롭게 장식성을 부여했으며, 조안 앤 파처Joan Ann Parcher는 바가 링을 통과하는 원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장시켜 바를 다면체로 제작하였다. 또한 엔스 클라우센Jens Clausen의 목걸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띄고 있지만 금속과 펠트의 질감을 대비시키며, 펠트의 유연

성으로 인해 바의 길이가 길어져도 링을 통과할 수 있다. 즉 재료의 특징과 개폐의 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장신구의 특이점은 그 기능은 충실히 수행함에도 잠금장치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펜던트로서 장신구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판 15] Heather Rathbun, <Adjustable Necklace with Puzzle Clasp>, sterling silver, roller chain, 2011

헤더 라트번Heather Rathbun은 장신구에는 흔히 쓰이지 않는 톱니바퀴의 메커니즘을 대입해 목걸이를 제작하였다[도판 15]. 톱니바퀴의 기어는 장식적인 요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이 맞물리는 톱니바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그것이 목걸이의 길이를 조정하게 만들어 일종의 잠금장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도판 16, 17]의 두 작가는 잠금장치의 기능성에 주목하기보다 잠금장치의 형태를 익숙한 아이콘으로 치환시켜 새로운 조형요소로 이용하였다. 예브게니아 카가노비치Yevgeniya Kaganovich의 작업은 기존의 잠금장치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걸림쇠 부분을 밖으로 꺼내 평면화하였다. 기존의 개폐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잠금장치의 핵심적인 역할인 '연결'이라는 개념을 체인 목걸이로서 전환하였다. 킴 벅Kim Buck은 진주목걸이를 모티브로 여러 조각의 브로치들을

만들어냈다. 진주 목걸이의 기능과 특성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도 이것이 단지 구형들의 음각 흔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주 목걸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금으로 표현된 잠금장치 부분 덕분일 것이다.

(좌)[도판 16] Yevgeniya Kaganovich, <Pearl Clasp Necklace I>, sterling silver,2008

(우)[도판 17] Kim Buck, <String of Pearls with Gold Clasp >, silver and 18k gold, 2003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현대작가들이 장신구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는, 또한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한 잠금장치에 주목하여 그것을 조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자 역시 잠금장치를 몇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데, 카가노비치나 킴 벅처럼 잠금장치의 기능을 배제하는 방식보다 파처, 림멜, 클라우센과 같이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잠금장치의 기능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였다. 이때 가장 중시한 것은 잠금장치의 고유 가치인 '연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으로, 잠금장치의 물리적인 개폐기능 뿐만 아니라 장신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기능, 그리고 탈착행위를 통한 장신구와 신체와의 상관관계이다.

4. 장신구 잠금장치의 종류와 특징

1장에서 언급한 성공적인 잠금장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나의 '이상적인' 잠금장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형태와 구조를 가진 잠금장치가 발전해올 수 있었다. 성공적인 잠금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생산된 기성품을 사용하는 대신, 잠금장치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장신구의 기술적, 시각적, 개념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7)]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위의 잠금장치의 변천에서 살펴본 잠금장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잠금장치를 구조적 특성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변형이 가능할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각 잠금장치의 특성을 서로 조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잠금장치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쓰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잠금장치를 만드는 것 또한 창조적 과정의 일부이며, 장신구의 전체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다.

---

7) Erhard Brepohl,『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Brynmogen press, 2001, p.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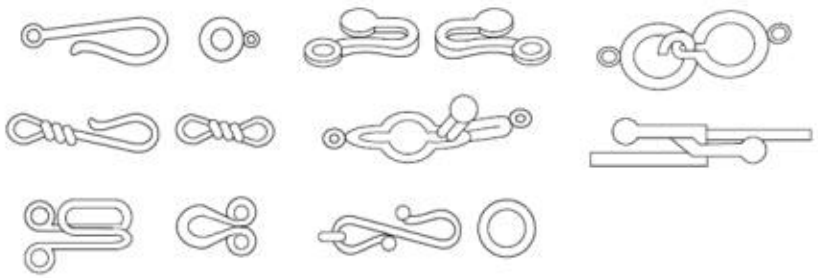
단순	선재		후크 hook	선의 탄성 변형
			토글 toggle	링과 바의 구조
	판재		키홀 keyhole	키홀과 키의 구조
			시스터 후크 sister hook	후크 홈의 구조
입체	회전		랜틸 클래스프 lentil clasp	걸쇠의 회전
			구형 잠금장치 sphere clasp	
			바이오넷 bayonet	
	스프링 내장		스프링 링 spring ring	스프링의 탄성 변형
			랍스터 캐치 lobster catch	
	탄성	평면	피시 후크 fish hook	걸쇠의 탄성 변형
			핀치 클래스프 pinch clasp	
		입체	혀장식 box catch	혀의 탄성 변형
	나사		나사 잠금장치 screw style	암, 수 나사의 결합
	경첩		경첩 잠금장치 hinge style	경첩 핀을 축으로 한 경첩 관절의 회전
	자석		자석 잠금장치 magnetic clasp	자석의 자성

1) 단순한 잠금장치

가) 선재 잠금장치

후크h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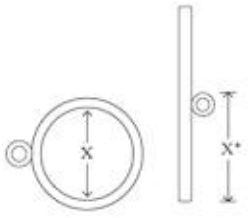
금속 선의 탄성을 이용한 잠금장치로 서로 간단히 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걸쇠의 안전성은 재료의 인장 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료 선택과 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판 18] 다양한 후크hook 잠금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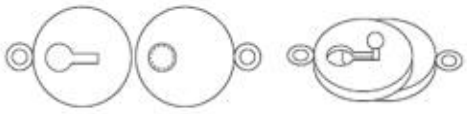
토글toggle

토글 또는 크로스 바cross bar, 오티OT라고 불리는 이 잠금장치는 단순함과 범용성,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다. 만들기 쉬우며, 사용이 비교적 용이하고, 매우 안전하다. 토글은 링과 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인의 한쪽 끝에 연결되어 있는 바가 반대쪽 체인 끝에 연결되어 있는 링을 통과해 고정하는 원리로 여러 크기로 제작 가능하다. 링의 지름은 바의 끝에서 중앙까지의 길이보다 작게 제작하여야 바가 링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한다.



[도판 19] 토글toggle 잠금장치

나) 판재 잠금장치



[도판 20] 키홀keyhole

[도판 21] 시스터후크sister hook

키홀keyhole

무거운 팬던트가 달린 목걸이에 유리하다.

시스터 후크sister hook

두개의 후크가 하나의 리벳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잠금장치는 리벳을 중심으로 열리고 서로의 턱에 걸쳐져 개폐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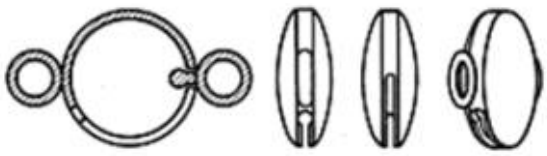
2) 입체 잠금장치

입체 잠금장치는 제작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접속부분이 형태 속에 감춰지는 이점이 있다.

가) 회전

렌틸 클래스프lentil cl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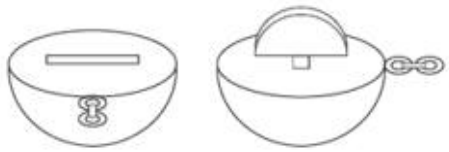
이 잠금장치는 외부 형태가 완두콩 같이 생겨서 렌틸 클래스프 lentil clasp라고 불린다. 장치의 몸체는 속이 비어 있고 한쪽에 홈이 파여 걸쇠의 돌출부를 그 홈에 끼워 회전시키면 고정되는 구조이다. 단순 잠금장치 중 키홀의 입체형으로 장신구를 착용하면 중력으로 고정되는 원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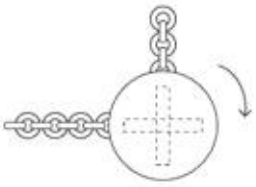


[도판 22] 렌틸 클래스프lentil clasp

구형 잠금장치

구형 잠금장치는 한쪽 반구에는 홈이 파져 있고, 다른 쪽 반구에는 그 홈에 꽉 끼워 질 수 있는 걸쇠가 부착되어 있어, 홈에 걸쇠가 들어간 후 회전 시키면 착용 후 중력의 힘으로 닫혀 안쪽 벽에 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회전형 잠금장치는 팔찌보다 목걸이에 더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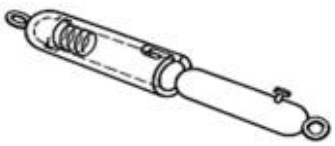




(좌)[도판 23] 구형 잠금장치
(우)[도판 24] 구형 잠금장치의 결합 구조

구형 잠금장치는 양쪽의 반구 잠금장치를 결합하여 닫으면 완벽한 구형을 이루기 때문에 비드 또는 진주목걸이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반구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도 응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내부구조의 형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이 가능하지만 한쪽 반구의 고리가 반구의 홈에 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곳에 부착시켜야 하고, 홈과 걸쇠의 두께 또한 일치해야 한다.

바이오넷bayonet



[도판 25] 바이오넷bayonet

파이프와 피스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이프의 홈을 따라 파이프의 내경에 맞는 피스톤의 걸쇠를 끼우고 회전시키면 고정되는 원리로, 파이프 내부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고정력을 높이기도 한다. 파이프의 홈이 J형태로 파여 있기 때문에 제이 클래스프J-clasp라고도 불린다.

나) 스프링 내장- 스프링 링spring ring, 랍스터 캐치lobster catch

장치 내부에 스프링을 집어넣어 그 탄성을 이용해 열리는 잠금장치이다. 스프링의 특성상 산과 열에 약해, 작업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몸체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도판 26] 스프링 링spring ring
(우)[도판 27] 랍스터 캐치lobster catch

다) 탄성tension

평면 - 피시후크fish hook, 핀치 클래스프pinch clasp

걸쇠와 그 걸쇠를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박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한 구조라서 대량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성품이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진주목걸이에 가장 많이 쓰여 왔다. 하지만 무거운 장신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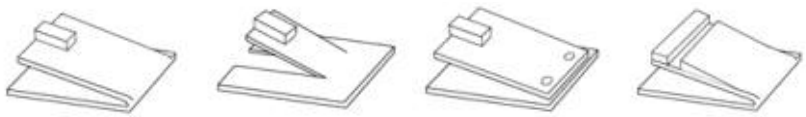
(좌)[도판 28] 피시 후크fish hook
(우)[도판 29] 핀치 클래스프pinch clasp; 피시 후크의 이중 변형 구조

입체 - 혀장식

일반적으로 혀 장식 또는 박스 캐치box catch라고 불린다. 혀 장식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 도전이 되기도 할 정도로 복잡한 여러 제작기술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안정성과 실용성, 응용가능성 등의 여러 이점들 때문에 많은 장신구에 사용되며 특히 고가의 장신구에 이용되어 왔다. 기본적인 구조는 금속판재를 접어 만든 탄성이 있는

걸쇠인 혀와 그것을 누르는 버튼, 그리고 혀를 끼울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분의 구조와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

● 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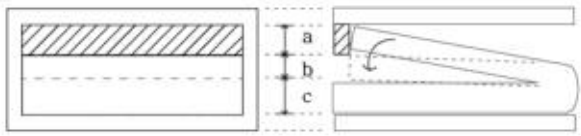


[도판 30] 다양한 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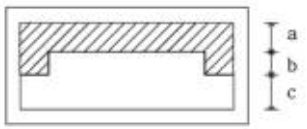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이 장치는 혀의 탄성을 이용한 잠금장치이기 때문에 탄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혀의 윗면의 두께가 밑면보다 얇을 경우(약 20% 정도) 탄성이 더욱 향상된다.

● 박스

혀를 끼우는 박스. 혀를 끼운 후 빠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스의 구조와 혀의 두께와 길이가 얼마나 정확히 맞느냐에 따라 혀 장식이 성공여부가 결정되므로 재단에 주의해야 한다.



[도판 31] 박스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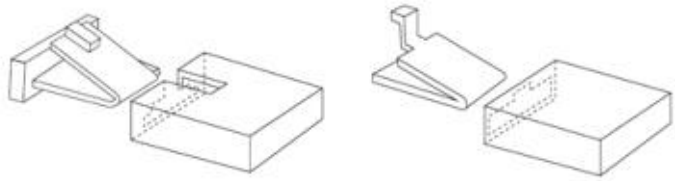


[도판 32] 박스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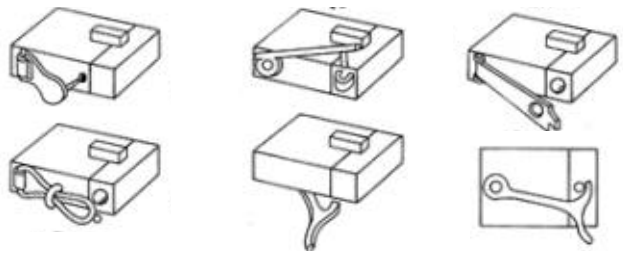
a. 혀가 걸릴 턱
b. 혀 윗면의 두께
c. 혀 밑면의 두께

혀의 윗면과 밑면이 들어갈 입구의 가로 길이를 다르게 하면 닫혔을 때 더욱 단단히 고정된다.

● 버튼



[도판 33] 혀장식 버튼 (혀가 끼워질 박스 내부/외부에 위치)



[도판 34] 다양한 종류의 안전장치

후크, 경첩 등 다른 잠금장치의 구조를 혀장식에 덧붙여 이중으로 안전 장치를 제작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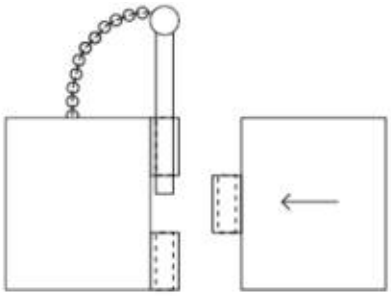
라) 나사

숫나사(볼트)와 암나사(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나사를 이용한 조립은 금속의 결합과 분리를 아주 손쉽게 해주므로, 금속작업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며[8] 잠금장치에도 응용 가능하다. 나사는 기성품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잠금장치의 특성상 기성품에 없는 크기나 특정한 재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이(금속 봉을 깎아 숫나사를 만드는 도구)와 탭(튜브의 안쪽 면에 암나사를 깎는 도구)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나사를 만들 때는 나사의 요철이 쉽게 마멸되지 않는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김경아, 이정임, 『공예가를 위한 귀금속 공예기법』, 쥬얼테크, 2005, p.111.

마) 경첩 잠금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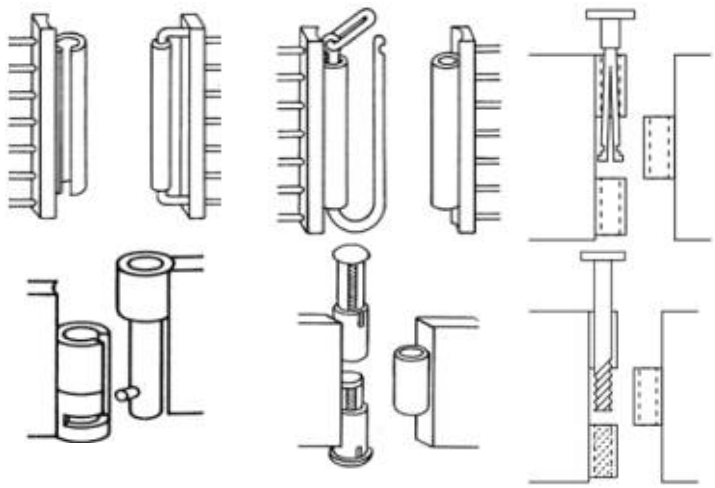
전통적인 경첩 구조에 기본을 둔 잠금장치로 물체의 두 부분을 이어, 이들이 연결된 채 일정한 방향과 각도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접속장치이다.[9] 경첩의 기본구조는 금속파이프를 양 끝에 부착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경첩 핀을 중심으로 파이프가 관절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원리이다. 잠금장치로는 경첩 핀의 탈착에 따라 장신구 전체가 개폐되는 원리를 활용하는데, 팔찌의 잠금장치로 많이 활용된다. 몸체의 다른 이음장치나 요소들과 동떨어지지 않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판 35] 경첩 잠금장치

또한 이 잠금장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경첩 핀은 길이가 짧으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길면 착용자의 옷이나 신체에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 알맞게 재단해야 한다. 또한 경첩 핀이 분리되어 분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핀을 몸체에 체인으로 연결, 부착시키기도 하는데, 체인의 길이 또한 전체 움직임과 디자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9) 전용일,『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245.



[도판 36] 다양한 경첩 핀 고정방법

또한 경첩 핀을 고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응용방법이 있는데, 이는 대개 다른 잠금장치나 이음장치의 원리를 응용한 것들이다.

바) 자석 잠금장치

자석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장신구의 잠금장치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2년 네오디뮴 자석(NIB 자석)[10]의 발명 이후 작고 저렴하면서도 강한 자성을 지닌 자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이후 많은 잠금장치에 활용되었다.

자석은 땜이 불가능하므로 마치 보석을 세팅하듯 난집에 자석을 끼워 바탕 금속에서 빠지지 않게 고정시킨다. 자성이 너무 세면 장신구의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너무 크지 않은 자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석의 자력은 비디오테잎, 컴퓨터 디스크, 신용카드 등에 손상을 가하고 임산부와 심장 보조 장치 이식환자에게 위험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

10)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에서 '네오디뮴 자석' 검색 참조.

Ⅲ. 연구 작품 설명

제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창조이겠지만 기존 것을 새롭게 보는 것 역시 창조다.[11] 이 연구는 기존의 잠금장치와 전혀 다른 형태나 구조의 잠금장치를 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종속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장신구의 잠금장치들을 새롭게 주목함으로써 간과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강조하고 한다.

> 엑스포메이션Ex-formation이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의 상대어로 고안된 조어造語로서,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한 소통의 방법을 말한다.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미지화하는, 즉 틀림없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근원으로 되돌려 그야말로 그것을 처음 접하는 것과 같이 신선하고도 새롭게 그 맛을 재음미해보려는 실험인 것이다.[12]

평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잠금장치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작동원리를 분석하며, 잠금장치를 장신구의 핵심적인 조형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작품은 제작방법의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잠금장치 각각 고유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 재료, 작동방식 등을 변형한 실험들을 시도하였다.

---

11) 하라 켄야, 『디자인의 디자인』, 민병걸 역, 안그라픽스, 2011, p.22.
12) 하라 켄야, 『알몸 엑스포메이션』,김장용 역, 어문학사, 2010, p.6.

1. 레디메이드ready-made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잠금장치는 장신구의 끝과 끝, 혹은 부분과 부분을 연결시켜 장신구를 인체에 걸리거나 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연구자는 잠금장치의 핵심을 '연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본질적 특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산업생산된 완제품 ready-made 상태의 잠금장치를 노동집약적인 반복 작업을 통해 독자적인 집합체로 결합, 변형시킨 작품을 제작하였다.

산업 생산된 완제품을 하나의 새로운 원자재로 생각한다는 발상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현대공예박물관Museum of Contemporary Craft에서 2008년 8월에 열린 <Manuf®atured> 전시에 그 개념이 분명하게 설명되어있다.

전시 제목인'Manuf®actured'는 산업생산된 제품을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분리하거나 혹은 집합체로서 결합시켜 변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예작가가 파운드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 범위는 대량생산된 제품들로까지 확장되었다. 산업생산된 제품을 수공 조작함으로써, 개념적 작업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산업제품이 드러내고 있던 고유의 형태와 기능은 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가치를 드러냈다. 물리적으로, 문맥적으로도 모두 분해된 파편이 창조력의 핵심인 것이다.[13]

---

13) Beverly Sanders,「The Handmade/Industrial Question: Reviewing "Manufractured"」, 『American Craft magazine』 , Dec. 2008.

(좌)[도판 37] Cat Chow, <Bonded>, single zipper, 2000
(우)[도판 38] Jerry Bleem, <Monument (after Barlach)>, found corrugated plastic, staples, 2001

이 전시의 출품작인 캣 차우Cat Chow의 <Bonded>는 의류부자재인 지퍼로 드레스를 만들어 재료의 기술적, 시적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으며[도판 37], [도판 38]의 작품에서는 스테이플러 심이 원래 목적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맥에서 이용된다. 연구자의 연구작품은 후자의 경우처럼 재료가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맥에서 이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캣 차우와 같이 재료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작품1 ~ 5]의 스프링 링, 랍스터 캐치 등 여러 종류의 잠금장치 제품들은 자체가 목걸이의 주인공이다. 잠금장치는 서로 서로 연결되어 목걸이의 부품이면서 곧 전부가 된다. 완성된 장신구는 각각의 잠금장치가 가진 연결 구조와 기능적 특징을 대조, 혹은 강조하고 있다.

[작품 1, 2, 3] ready-made clasp series I necklace 1, 2, 3, 랍스터 캐치,
13×22×0.5cm, 14×19×0.5cm, 13×20×1.5cm (순서대로), 2011

(좌)[작품 4] ready-made clasp series I necklace 4, 스프링 링, 14×20×0.5cm, 2011
(우)[작품 5] ready-made clasp series I necklace 5, 랍스터 캐치, 14×21×05cm, 2011

[작품 1 ~ 5]의 연결방법이 잠금장치의 고리 하나에 또 다른 고리 하나를 끼우는 일 대 일의 평면적인 방식이라면, [작품 6 ~ 10]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 체인메일 제작기법을 이용하여 일 대 다수의 다축적多軸的 연결방식을 취하였다.

[도판 39] 체인메일chain 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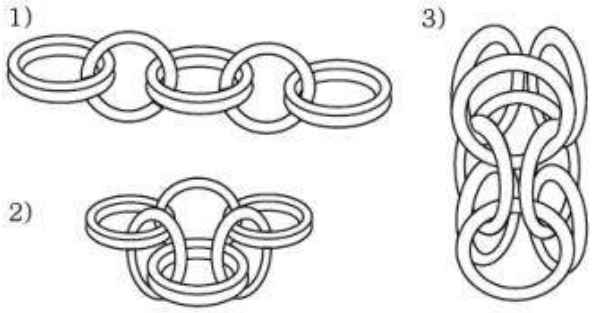
'체인메일chain mail'이라는 말은 원래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전장에 나갈 때 입는 쇠사슬 고리를 엮어 만든 갑옷류를 의미한다.[14] 체인메일 기법은 금속선으로 만든 동그란 고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기법이다.[15]

[작품 6 ~ 10]에서 사용한 스프링 링 제품은 체인메일 기법에 사용되는 쇠사슬 고리의 기본형과 유사하다. 그래서 [도판 40, 41]의 체인메일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잠금장치들을 연결하면 만들어진 고리 사이의 빈 공간이 인체의 곡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셋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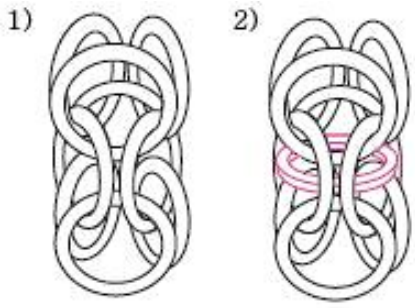
---

14) 김희정, 「중세배경 영화에 나타난 기사복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9권, 2007, p.77.

15) 이지은, 「체인메일(Chain mail)기법을 이용한 패션 장신구 연구 : Scale 이미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 논문, 2008, p. 35.



[도판 40]체인메일-inverted round 기법



[도판 41]체인메일-captive inverted round 기법

위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작품 6]은 금과 흑니켈로 도금된 스프링 링을 연결하여 색상에 변화를 주고, 서로 얽혀있는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그 구조 속에는 진주를 넣어 일반적인 진주 목걸이에서의 잠금장치의 종속적인 기능과 위치를 도치시켰다.

[작품 7]에서는 [도판 41]의 기법을 응용하여 이를 이중으로 연결시켰다. 아랫줄 잠금장치의 연결 구조 속에는 색상 있는 유리 진주를 셋팅하여 선과 면의 부피감, 질감과 색상 등을 대비시켰고, 윗줄은 체인메일 기법의 구조적인 연결방식을 강조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 무겁지 않은 부피감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스프링 링의 원형의 형태는 토글 잠금장치의 링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와 연결될 수 있는 토글 장치의 바를 제작하여 잠금장치가 필요한 짧은 길이의 목걸이로 제작할 수 있었다.

[작품 6] ready-made clasp series II chain mail necklace 1,
스프링 링, 진주, 흑진주, 23×40×2cm, 2013

[작품 6]의 세부사진

[작품 7] ready-made clasp series II chain mail necklace 2, 스프링 링, 유리 진주, 20×20×3cm, 2013

[작품 8] ready-made clasp series II chain mail bracelet 1, 2, 3, 스프링링, 진주, 10×10×1.5cm, 2013
[작품 9] ready-made clasp series II chain mail bracelet 1, 2, 3, 스프링링, 진주, 10×10×1.5cm, 2013
[작품 10] ready-made clasp series II chain mail bracelet 1, 2, 3, 스프링링, 10×10×1.5cm, 2013

2. 구형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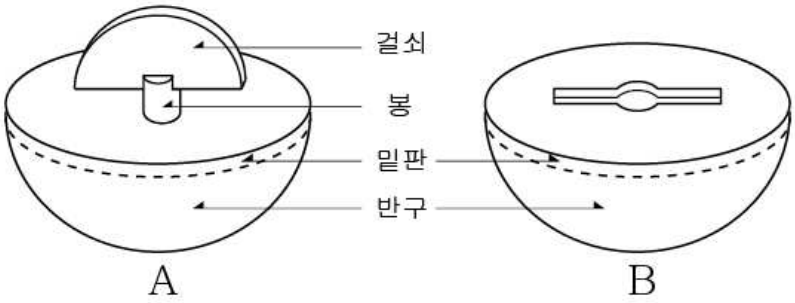
> 신변장신구에서 잠금장치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개폐장식과 열고 닫는 기능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지녀야 한다. 간단한 펜던트에서부터 복잡한 브로치에 이르기까지 장식의 종류는 머리 장식으로부터 발 장식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직접 제작할 수는 없지만 일품제작의 묘미는 장신구에서 또 다른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한다.16)

위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연구자는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장신구와 '공예가'가 만든 장신구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특징 중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각각의 장신구에 맞게 고안된 잠금장치라고 생각한다.

여러 잠금장치 중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쉽고, 구조가 간단하여 많은 장신구에 활용되고 있는 구형잠금장치는 개폐의 기능이 구 내부에 감춰져 있는 잠금장치이다. 따라서 구형의 보석이나 장식물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장신구를 이룰 때 종종 선택 활용되는 메커니즘이다. 다음에서는 구형 잠금장치의 기본형 제작방법을 살펴보며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를 활용한 연구작품을 설명할 것이다.

16) 김석화, 『현대금속공예』,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p.306

구형 잠금장치 제작 방법



[도판 42] 구형 잠금장치 기본구조

① 원형으로 금속판을 자른다. 판의 지름은 (완성 될 구의 지름 + 지름의 1/2)로 계산한다.

② 데핑 블럭과 공이를 이용해 직경이 큰 틀에서 점차 만들고자 하는 크기로 옮겨가며 반구를 만든다.

③ 반구 단면의 크기로 밑판을 두장(A, B) 만든다.

④ A 걸쇠 만들기

a. 반구의 내경보다 작은 직경의 반원을 잘라 걸이를 만든다.

b. 걸쇠의 두께보다 두꺼운 봉의 중앙에 걸쇠의 두께만큼 홈을 판 후 땜한다.

⑤ 밑판 중앙에 4-b의 봉과 같은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은 후 B 밑판 두께만큼의 높이를 띄우고 걸쇠를 땜한다. (밑판의 두께보다 더 띄우면 반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므로 주의한다)

⑥ B의 밑판에 4-b의 봉과 같은 크기로 구멍을 뚫은 후 걸쇠와 같은 넓이의 홈을 파낸다. (홈의 두께가 걸쇠의 두께보다 넓으면 헐거워지므로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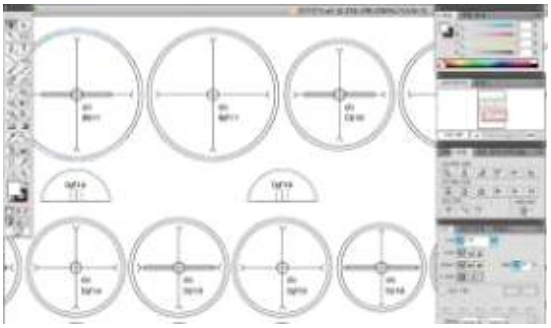
⑦ 잠금장치와 장신구를 연결할 고리를 만들어 부착한다. 고리는 고정된 것보다 회전 가능한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잠금장치의 기능이 뚜렷이 드러나는 구형 잠금장치가 가진 물리적인 기능을 조형적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작품 11]에서 구형 잠금장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팬던트로서 장신구의 앞쪽에 위치하여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된다. 항상 뒤쪽에 감추어지고, 간혹 잠금장치가 앞으로 내려오면 잘못 착용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잠금장치의 무게를 오히려 무겁게 하여 항상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형 잠금장치는 또한 회전, 결합 시 완벽한 구형을 이루므로 비드 또는 진주 목걸이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한 구형의 매끄러운 형태적 특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다른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잠금장치의 크기만 확대하였으며, 재료의 광택은 더욱 강조시켰다.

[작품 12]는 [작품 11]과 같이 구형 잠금장치의 제작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레디메이드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과 같이 잠금장치들이 목걸이의 부품이자 또한 전부가 되는 개념을 담고 있다. 유닛들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크기로 판금 제작한 구형 잠금장치들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유닛이 똑같은 구형 잠금장치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유닛의 순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모든 유닛들의 표면은 금속의 물리적인 특성을 강조하기위해 광택이 나도록 연마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유닛을 연결하였을 때 달라지는 표면굴곡에 따라 서로 반사하는 상들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결방식에 따라 길이와 형태, 배열방식이 달라지고 독특하고 활기찬 리듬감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조작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반복적인 구의 형태에 새로운 장식성과 착용의 즐거움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좌)[도판 43] 작품 디자인 과정(Adobe illustrator 사용)
(우)[도판 44] 작품 내부의 부식표현

한편 이 작품에서는 작업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부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어 디자인에 대한 개인적 의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즉, 모든 구형 잠금장치의 내부 밑판과 걸쇠에는 설계할 때 표시해 놓았던 유닛들의 번호와 위치를 부식 강조함으로써 작업자의 열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작품 11] 구형 잠금장치 목걸이 Ⅰ, 백동, 925은,
13×13×4cm, 2011

[작품 12] 구형 잠금장치 목걸이 Ⅱ, 백동, 925은, 18×18×4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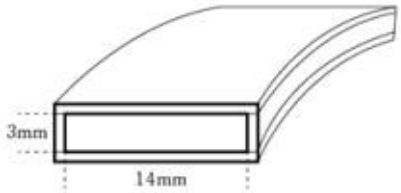
[작품 12]의 다양한 연결방법

[작품12]의 유닛

3. 혀장식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일명 혀장식이라고 하는 잠금장치는 박스형의 구조에 많이 활용되는 잠금장치로써 속이 비어있는 입체형태의 박스와 내부의 걸쇠를 개폐구조화한 장치이다. 혀장식은 그 실용성과 안정성 그리고 특유의 작동방식 덕분에 값비싼 장신구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는 잠금장치이다. 특히 혀장식의 제작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공예 기법을 활용하며,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작품을 설명하기에 앞서 혀장식의 기본형 제작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작동원리를 이해하기로 한다.

혀장식 만들기



[도판 45] 혀장식 기본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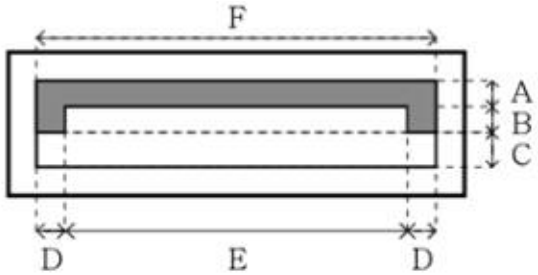
① 박스만들기

a. (박스의 위, 아래면 두 장 준비) 1T의 정은 판을 길이에 맞게 자른다.

b. 열 풀림 후 혀 장식과 연결될 몸체의 곡면에 맞게 롤러로 정리.

c. (옆면 두 장 준비) 위, 아래 면을 따라 금긋개로 표시하여 자른다.

d. 아래 면에 옆면 두 장을 먼저 땜하고, 윗면을 땜한다.



[도판 46] 혀 장식 박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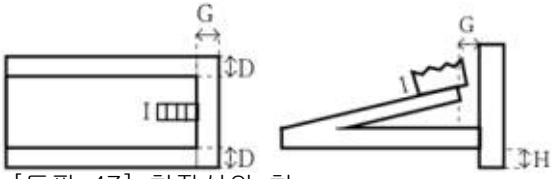
A. 0.8mm판보다 여유 있게 0.9mm	F. 혀의 밑면 (14mm)
B. 0.8mm판보다 여유 있게 0.9mm	G. 박스 턱의 판 두께 (1mm)
C. 1.0mm판보다 여유 있게 1.2mm	H. 박스 판 두께(1mm)
D. 양쪽 턱 (1mm)	I. 버튼 입구
E. 혀의 윗면 (12mm)	

② 박스에 턱 대기

a. 1T판을 회색 부분(⊓)의 치수로 재단한다.

b. 박스에 정확히 땜한다.

③ 혀만들기



[도판 47] 혀장식의 혀

a. 1T의 판을 길이에 맞게 자른다.

b. 접혀질 혀의 윗면의 두께는 밑면보다 얇으면 텐션이 훨씬 좋아지므로 20%정도 얇게 압연한다.

c. 혀의 윗면이 될 부분을 자른다.(E)

d. 접을 부분에 톱 선을 주고 접는다.

e. 접힌 부분이 두꺼워지므로 롤러로 정리한다.

f. 혀가 박스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다.(F)

g. 밑면 혀의 길이를 윗면의 길이보다 1mm(G) 크게 자른다.

h. 박스의 단면과 같은 크기의 판을 재단하고 혀가 들어갈 높이를 띄운 후(H) 혀와 수직으로 땜한다.

④ 버튼만들기

[도판 48] 혀 장식 버튼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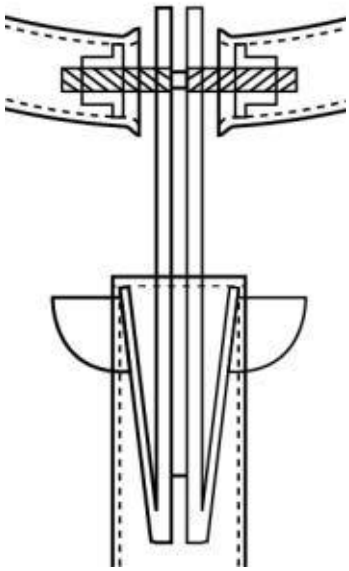
a. 박스에 버튼을 넣을 입구를 절단한다.(I)

b. 혀를 박스에 집어넣어 버튼의 입구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다.

c. 버튼을 만든다(버튼에 요철을 만들어 마찰을 좋게 할 수도 있다)

d. 혀에 버튼을 땜한다

[작품 13, 14]는 잠금장치가 없으면 인체에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강조한 목걸이이다. 이는 [작품 11]과 같이 잠금장치가 목걸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판 49] 혀장식 시리즈의 잠금장치 기본구조

이 목걸이의 구조는 ⅰ)목에 밀착되는 원형의 파이프, ⅱ)그와 연결되는 두개의 혀, ⅲ)혀가 끼워지는 박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연결 방식은 경첩, 나사 결합방식, 혀장식의 개폐 구조를 활용하였다. 개폐 원리는 목에 밀착되는 원형의 은 파이프가 위쪽의 경첩을 중심으로 열리게 되고, 이 파이프의 양쪽 끝에 두 개의 혀가 나사 결합방식으로 연결되며, 그 혀는 이중 구조를 가진 혀장식 박스로 연결되어 개폐되는 방식으로, 앞선 작품보다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더욱 강조된 작품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일반적인 연결장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예를 들어 나사 결합부분은 암, 수 나사를 끝까지 잠가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 인체에 연결되었을 때 목과 몸의 각도에 따라 세밀하게 움직임일 수 있다. 그리고 혀장식은 박스 아래 부분에 장식적인 요소를 달고, 장신구의 펜던트로서 위치하며, 동시에 목걸이의 여러 다른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그 자체가 잠금장치이자 핵심적인 주인공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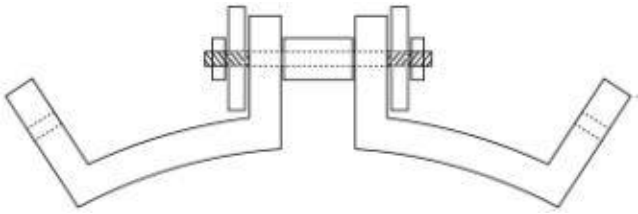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목걸이를 이루는 요소들의 기능은 [작품 13, 14]의 제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때문에 모든 형태는 기능을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형태를 배제한 채, 각 요소들의 기능과 연결방법의 핵심적인 특징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장신구의 특징인 장식성 또한 살리기 위해 토파즈를 사용하여 은의 재질감과 대비시키며,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인 구조의 엄격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13] 혀장식 목걸이 I, 925은, 합성 토파즈, 14×14×26cm, 2013

[작품 14] 혀장식 목걸이 II, 925은, 합성 토파즈, 14×14×23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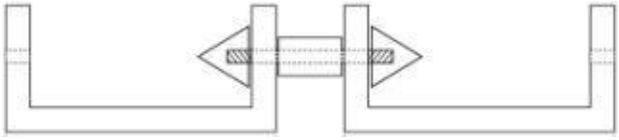
4. 나사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대부분 잠금장치의 메커니즘은 착용 시(혹은 닫혀 있을 때) 숨겨져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구조를 외부로 노출시켜 모든 유닛들이 개폐장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신구의 개폐장치로는 흔히 쓰이지 않는 나사 형 결합구조인 볼트와 너트의 연결 방식을 이용하였다.



[도판 50] [작품 15]의 연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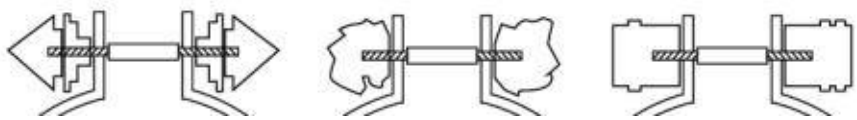
[작품 15]에서는 보통 볼트와 너트 사이에서 감춰져 보이지 않는 와셔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와셔를 라피즈 라즐리로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나사의 체결효과를 도우면서도, 잠금장치 나아가 장신구의 장식성이 더 강조될 수 있었다.



[도판 51] [작품 16]의 연결구조

[작품 16]의 몸체는 [작품 12]처럼 미리 설계한 흔적을 지우지 않고 제작과정에 컴퓨터 툴을 사용한 특징을 강조하였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특징인 그리드와 연산 수치들을 돌출시켜 그것을 오히려 장식적 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너트 머리가 고정 기능을 수행

함과 동시에 장식적 역할을 강조하도록 일반적인 육각너트의 형태에서 벗어난 독특한 형태로 너트머리를 만들었다.



[도판 52] [작품 17]의 연결구조

[작품 17]의 팔찌 시리즈는 [작품 15, 16]의 목걸이보다 너트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확보됨으로써 너트의 구조와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 각 팔찌의 너트머리, 즉 선반 가공으로 만든 금속 머리와 황철석 너트머리의 내부에는 동일한 나사산 핀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바꿔 끼는 것이 가능하다.

나사형 잠금장치 시리즈의 경우, 장신구 개폐 장치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목걸이의 경우 모든 유닛들이 나사로 이루어져있어 마지막 유닛을 잠글 때의 착용이 불편했으며, 팔찌는 팔목에 끼운 후 한손으로 볼트와 너트를 여닫아야 하는 점이 불편하였다. 하지만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그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됨으로써 비평적,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 작업이었다.

[작품 15] 나사 잠금장치 목걸이 I ,황동에 금도금, 라피스 라즐리, 너트, 18×18×2cm,2012

[작품 16] 나사 잠금장치 목걸이II 황동, 황동에 금, 백금도금, 너트, 17×17×1.5cm, 2012

[작품17] 나사 잠금장치 팔찌, 황동, 백동, 황동에 금, 로즈골드 도금, 황철석, 너트, 8×8×3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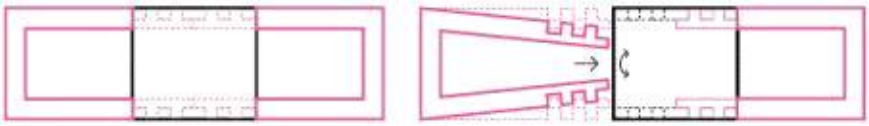
5. 핀치 클래스프pinch clasp 잠금장치를 활용한 장신구들

핀치 클래스프는 구조가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기능하며 동시에 개폐 동작이 편리하여 여러 장신구의 잠금장치로 많이 쓰여 왔다. 하지만 핀치 클래스프의 작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걸쇠는 보통 장치 내부에 숨겨지게 되어 그 원리와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작품 18]은 기본적으로 핀치 클래스프의 걸쇠 구조를 강조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각 요소는 외부로 노출되어, 외부가 그 내부의 공간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를 유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일반적인 핀치 클래스프보다 훨씬 크게 만들고, 이를 유닛화하였다. 모두가 잠금장치인 동시에 목걸이의 체인이자 몸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크기를 키우고 보니, 확대된 크기에 따라 무게가 무거워져 목걸이로 착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었다. 따라서 착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아크릴을 걸림쇠 재료로 선택하여 걸쇠의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탄성을 활용할 수 있었고, 걸쇠가 걸릴 박스는 가벼운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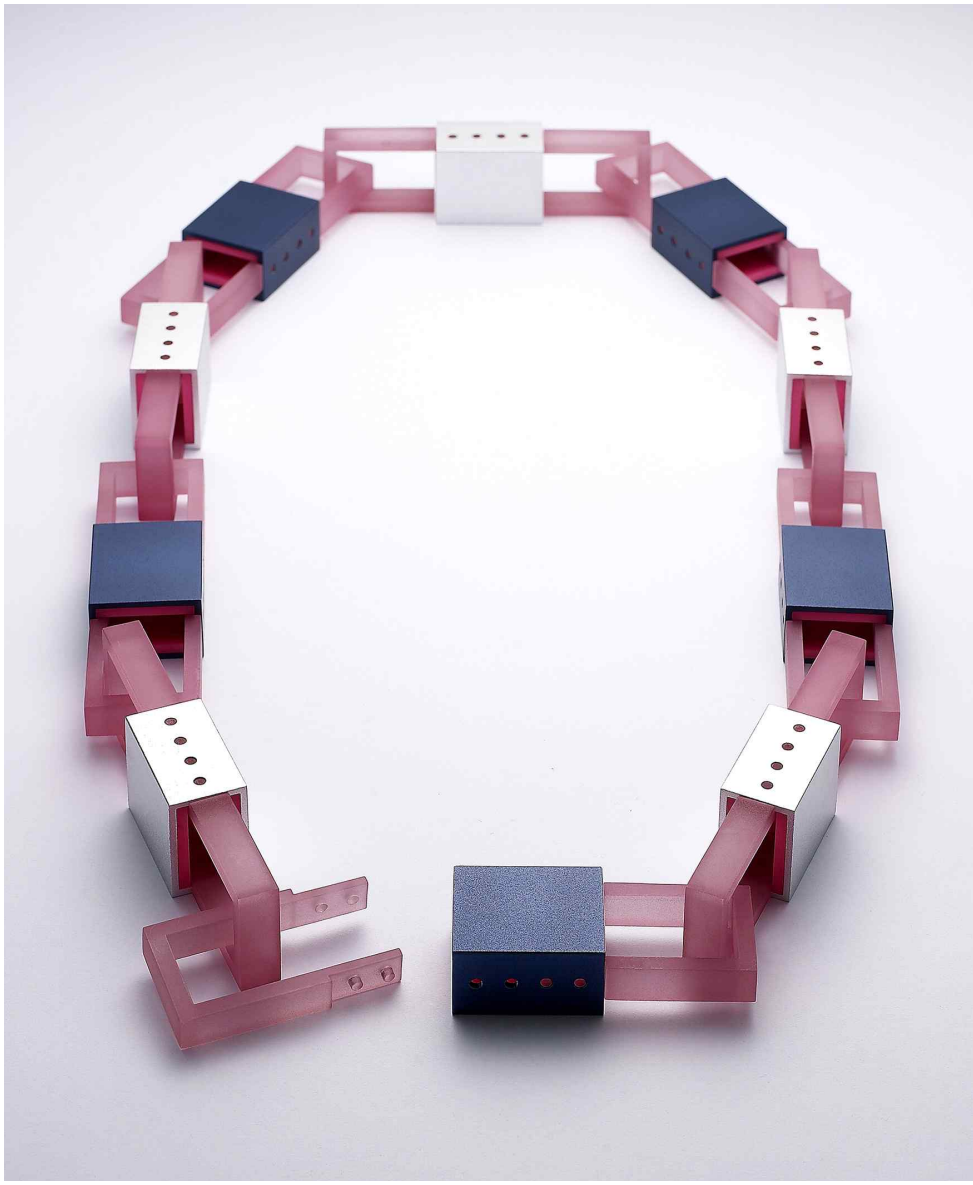
아크릴과 알루미늄은 염색과 에노다이징 과정을 통한 착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상 표현에도 유리한 점이 있었다. 알루미늄 박스는 두 가지의 색상으로 에노다이징하여 선명한 색감을 대비시킬 수 있었고, 걸쇠 부분은 샌딩한 투명 아크릴을 염색하여 은은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색상의 배열을 통해 각각 유닛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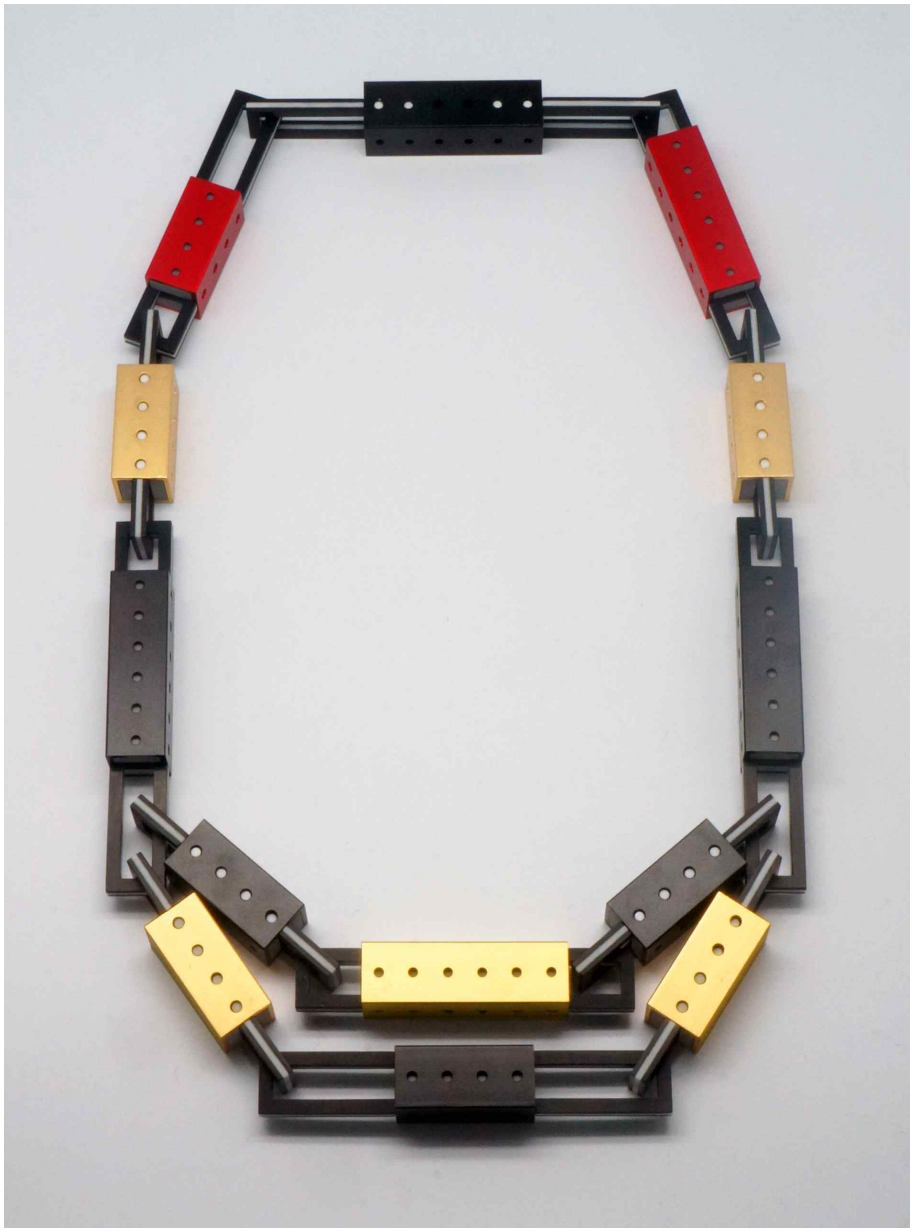
[도판 53] 핀치 클래스프 시리즈의 기본 연결구조

[작품 19]의 목걸이에서는 유닛들간에 보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걸쇠와 박스의 색상이나 길이에 변화를 주었다. 박스는 세가지의 색상으로 에노다이징 하고, 걸쇠는 다른 색상의 아크릴판을 겹쳐 제작하여 걸쇠의 명쾌한 선적 요소와 박스의 부피감의 변화를 대비시켰다. 하지만 길이의 변화로 무게가 무거워져 목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박스 내부에 있던 아크릴 소재를 더욱 가벼운 포맥스로 교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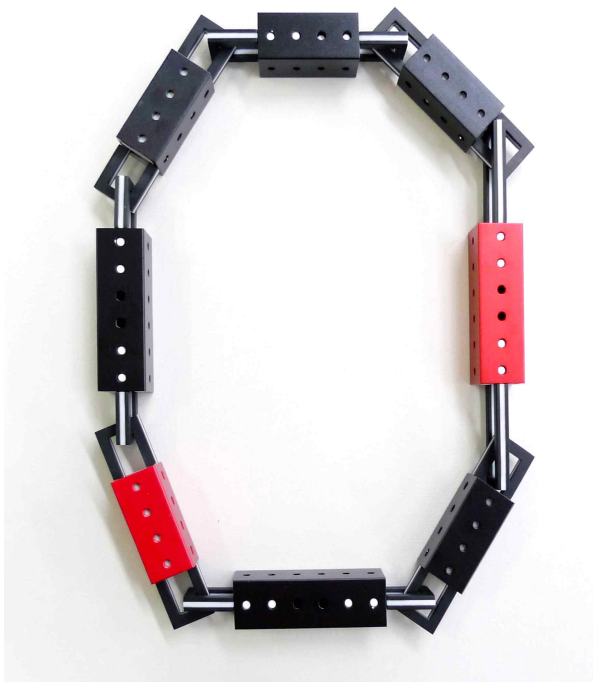
이처럼 [작품 18, 19]의 모든 유닛들은 개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착용자는 잠금장치들을 열고 닫으며 그 구조와 원리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유닛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색상의 대비와 리듬감 등의 변화는, 유닛들의 기하학적이고 반복적인 구조에 시각적인 재미를 더해 독특한 질서를 만들고, 착용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18] 핀치 클래스프 목걸이 I, 알루미늄, 아크릴, 25×35×3cm, 2013



[작품 19] 핀치 클래스프 목걸이 II, 알루미늄, 아크릴, 포맥스,
30×35×1.5cm, 2013



[작품 19]의 다양한 연결방법

[작품 19]의 유닛

Ⅳ. 결론

이 연구는 장신구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소홀히 인식되었거나 종속적으로 위치했던 잠금장치에 새롭게 주목하여, 이를 장신구의 핵심적인 조형요소로 활용해보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잠금장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잠금장치의 발명이나 개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잠금장치의 독특한 제작방법에 주목하여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잠금장치의 본질을 재해석 하고 새롭게 조명하고자 함이다.

잠금장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장신구의 잠금장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신구의 잠금장치가 물리적인 개폐기능 뿐만 아니라 장신구의 제작기법, 재료, 형식과 구조를 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자는 착용자의 탈착행위, 장신구와 신체의 상관관계 등에 주목하며 잠금장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잠금장치를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한 연구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각각의 작품마다 잠금장치 작동원리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실험과정을 고스란히 담으며, 그럼으로써 잠금장치 고유의 제작기법과 작동방식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잠금장치라는 장신구의 한 요소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제작 과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또한 착용자나 관람객이 공예적 특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품제작이 잠금장치 구조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조금은 병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각 부류의 연구 성과를 서로 대조해 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연구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연구의 한계점은 지속적인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자 창조적 작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잠금장치에 대한 연구가 이후 다른 공예가들에게도 지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장신구 자체가 단순히 몸을 치장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장신구와 착용자 간에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새롭게 주목 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경아, 이정임, 『공예가를 위한 귀금속 공예기법』, 쥬얼테크, 2005
김석화, 『현대금속공예』,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 Michele Root-Bernstein),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2007
마츠타 유키마사(松田 行正), 『원과 사각형의 모험』, 김이분, 김경균 역, 정보공학연구소, 2002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 『인간을 위한 디자인』, 조재경, 현용순 역, 미진사, 2009
켄야 하라(原 研哉), 『디자인의 디자인』, 민병걸 역, 안그라픽스, 2011
켄야 하라(原 研哉), 『알몸 엑스포메이션』, 김장용 역, 어문학사, 2010
클레어 필립스(Clare Phillips), 『장신구의 역사』, 김숙 역, 시공아트, 1999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 『공예란 무엇인가』, 허보윤 역, 미진사, 2011

Alex Schaffner, Fritz Loosli, Herbert Merz, 『Manuel d'apprentissage du bijoutier-joaillier』, trans. Suzanne Styner, Watchprint.com Editions , 2011

Erhard Brepohl, 『The Theory and Practice of Goldsmithing』, Brynmogen press, 2001
Helen Williams Drutt, Peter Dormer, 『Jewelry of Our Time』, Rizzoli, 1995
Jivan Astfalck, Jane Adam, Paul Derrez, 『New Directions In Jewellery』, Black Dog Publishing, 2005
Oppi Untracht, 『Jewellery Concepts and Technology』, Doubleday Books, 1982
Ray Hemachandra, Chunghi Choo, 『Showcase 500 Art Necklaces』, Lark Crafts, 2013
Tim McCreight, 『Complete Metalsmith』, Davis, 2005
Ursula Ilse-Neuman, 『Inspired Jewelry』, Museum of Arts and Design, ACC Editions, 2009

논문 및 비평

김희정, 「중세배경 영화에 나타난 기사복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9권, 2007
이지은, 「체인메일(Chain mail)기법을 이용한 패션 장신구 연구 : Scale 이미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 논문, 2008
Beverly Sanders, 「The Handmade/Industrial Question: Reviewing "Manufractured"」, 『American Craft magazine』, Dec. 2008

웹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Metropolitan Museum of Art: www.metmuseum.org
Museum of Contemporary Craft: www.museumofcontemporarycraft.org
Victoria and Albert Museum: www.vam.ac.uk
Arthur Hash: www.arthurhash.com
Heather Rathbun: www.heatherrathbun.com

Kim Buck: www.kimbuck.dk
Luna Seo: www.luna-seo.com
Maison Martin Margiela: www.maisonmartinmargiela.com
Michael Becker: www.beckermichael.de
Roger Rimel: www.rogerrimel.com
Yevgeniya Kaganovich: yevgeniyakaganovich.com
Wikipedia: en.wikipedia.org
ko.wikipedia.org

Abstract

A Study on Jewelry Productions using the Structural Elements of Locking Mechanisms

Kim, Woo Jung
Major in Metal Smith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how to apply jewelry's locking mechanisms as the main structural element of a jewelry creation. The latching devices of jewelries serve as the opening and closing instrument to attach the actual piece to the human body. Moreover, depending on which type, looks, and techniques of the device, they capture various esthetic values towards the finishing of the works. However, most of the locking mechanisms are rather hidden behind or inside the overall figure of the jewelry, which limit their functions as a mere assistance to the main piece. This research mainly questions the importance, yet easily ignored values of different types of locking devices, and to reinterpret and recreate them as the main visual, structural element of the jewelry: furthermore coming across the

significance of these mechanisms by exaggerating and placing them as the main elements of my works.

In order to fulfill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 studied the definition and usage of locking mechanisms, history, and reinterpretation of the thesis in contemporary jewelry works. Furthermore, I organized different types of locking mechanisms based on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their functions and performances.

To propose and introduce new understanding and possibilities of the locking mechanisms as the main feature of art jewelry, I made several jewelry pieces that illustrate such ideas. Each work is based on specific latching devices' operation propert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se works focus on the attaching and detaching of the lock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the jewelry and the wearer, further expanding their distinct qualities and usages to unique and various ways. Additionally, I intend to suggest that jewelry and ornament pieces not only embellish the body, but also form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itself and the wearer, opening a new method of communication.

keywords : locking mechanism, jewelry, structural element
Student Number : 2010-21291